

성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이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당신과 만나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십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생활 규칙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성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곧 세례와 성찬이 그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학습, 유아 세례, 입교 등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세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한 교인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과거의 육신적인 생활을 씻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붙임 하여 하나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세례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것을 말하며, 물 세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올리는 결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3장 11절]

2. 세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물을 손에 찍어서 머리에 얹고 세례를 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온몸을 물에 담그고 하는 세례도 있습니다. 이를 일명 침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몸에 물을 뿌려 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교파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것이므로 어느 방법이라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1년에 2-4회 정도 베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별도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찬식과 함께 1년에 2회 정도 베푸는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28장 19절]

☞ 세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1.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받을 수 있는 예식입니다. 14세 이상의 교인이 받을 수 있으며, 학습을 받기 이전에 교리를 어느 정도 익히고 교리 문답을 마친 후에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제도인데, 세례 받을 준비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계속하여 교인의 생활을 배우고 익혀야 하

며, 다시 6개월 정도 흘러서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에 베풀어지는 의식입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 받은 부모가 아기를 대신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만에 베푸는 할례에 그 기원을 둔 의식입니다.

3.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행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는 예식인데, 물론 세례를 베풀지는 않고 문답과 서약만으로 입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 성찬이란 세례 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1. 떡은 살이고 포도주는 피를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푸시던 의식입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되새기고 보존하는 의식입니다. 떡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여 포도주(즙)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여, 성찬식은 이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마태복음 26장 26-27절]

2.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실체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신자의 신앙이 자라고 보존되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더 활기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6장 56-57절]

3.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성찬에 합당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 ① 오직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인으로서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 ②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교인이어야 합니다.
- ③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사람과 잘못된 관계가 없는지 살핀 후에 참여합니다.
- ④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⑤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 ⑥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세로 받아야 하는데,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1장 26-27절]

성찬은 과거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기념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헌신을 다짐하며 묵상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켜야 할 예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성례식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되면 그 뜻을 잘 살피서 준비를 함으로써 성례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 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여호와 이레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 살 때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결코 바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팔을 멈추게 하고 근처 수풀의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대신 잡아 제사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창세기 22:14)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는 모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가치는 변하지 않는 법...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지요...

그걸 본 교수는 갑자기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먹에 꼭 쥐어서 꾸기더니

다시 들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또 그걸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서.. 발로 밟았고...

수표는 꾸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교수가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당연히 손들었겠지요 학생들은...

그걸 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꾸겨지고 더러워진 10만 원짜리 수표일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나"라는 것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꾸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사회의 바닥으로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란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하는 "나" 못지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또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